



# 주간 통일정세

2007-04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정상회담 관련 2. 6자회담 관련 3. 대북한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농경지 벼 수확 시작(10/6, 노동신문; 10/5, 조선중앙통신)**
  - 황해북도 곡산군에서는 폭우로 인해 수천 정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으나 군내 주민들과 건설건설공업성·무역성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수해 복구를 끝내고 농장별로 벼 수확·탈곡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황해남도 신천군에서도 벼를 수확했다고 보도
- **개천절 맞아 ‘단일민족’ 강조(10/3,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우리 민족은 단군의 핏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땅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풍습도 하나인 단일민족”이라며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공고화되고 체질화된 민족의 공통점을 기초로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단일민족 강조를 통한 통일 위업 실현을 촉구
  - 또 “이 민족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실천하며 6.15 통일시대를 대결시대로 되돌리려는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강철원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고 천명하였음
  - 현재 2002, 2003, 2005년에 남북이 개천절 공동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음
- **생물다양성보호 중점지역 지정(10/1, 조선신보)**
  - 올해 구월산, 칠보산, 장수산 등을 생물다양성 보호 중점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환경보호 정책실현을 과시

###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및 핵관련

- **연내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당연시 (10/5~6, 조선중앙통신)**
  -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2007년 말까지 우리(북한)가 핵시설들을 무력화(불능화)하는 대신 미국은 우리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연내에) 5자는 2.13합의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완료하기로 하



였다.”고 보도

- 이와 같이 조선중앙통신을 포함한 북한 언론매체들은 북핵 6자회담 '10.3 합의'에 명시되지 않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시기를 연내로 못 박아 두고자 하는 의도를 표출

#### 나. 북·미관련

##### ●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우리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 종식 촉구(10/6,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영토나 인구수에서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 선제공격 위협과 가혹한 경제제재 속에서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선군(先軍)정치를 해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하면서
-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남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우리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이 종식돼야 한다”(북한의 최수현 외무성 부상이 지난 2일 제62차 유엔 총회)고 촉구

#### 다. 북·일관련

##### ● 조총련, 「2007 남북정상선언」 관련 김정일 해외동포 배려에 고무(10/6,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는 2007남북정상선언에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기된 것과 관련,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과 배려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익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 「2007 남북정상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맞게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자주통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며 “모든 재일동포들이 사상과 단체의 차이를 초월해 재일동포의 민족권을 지키고 확대하며 통일의 한길에 합세해 나갈 것”을 호소

##### ● 탈북자 일가족 9명, 지난 8월 日입국(10/1, 요미우리신문)

- 북한을 탈출해 5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북송 재일동포 출신 탈북자(58)의 남은 가족 9명이 북한을 탈출하는데 성공, 지난 8월초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보도됨



### 3. 대남정세

#### 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편성 보도(10/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 라디오방송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합의한 ‘남북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특별 편성 형태로 주민에게 보도
  -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선중앙방송과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의 경우, 각각 이날 오후 1시20분께 동 선언 전문을 두 차례의 낭독 형태로 보도
  - 또한 북한 방송은 특별방송 이후 정규 보도 시간마다 선언전문을 반복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시간대에 ‘10·4선언’ 전문을 타전, 남측 언론과의 동시 전달했으며 또 조선중앙TV는 오후 5시10분 선언 전문을 머리기사로 보도

#### 나. 남북교류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비난(10/2,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치욕적인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정전협정에 따라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정치회의를 파탄시키고, 남조선에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을 강요해 나섰던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영구강점과 대조선 침략정책의 산물인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은 불평등하고 강도적인 예속조약”이며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담보도 마련했다”고 비난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정상회담 관련

- 주변 4국, ‘2007 남북정상 공동선언’(10/4) 환영
  - 손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의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합의는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 북·미 양국은 관계정상화 공약을 유지하되, 미국은 북한의 조치들에 병렬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종료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북·일 양국은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하게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음
- 북한에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되, 구체적 사항은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음
-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북경에서 개최하되, 이전에 회담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부시 대통령, '10·3 합의' 환영(10/3)**

- 부시 대통령은 연내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골자로 한 북핵 6자회담 합의문 채택을 환영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 **북, UEP 해명 약속**

- 미 국무부는 북핵 2단계 합의에 대한 '설명서(fact sheet)'(10/3)를 통해 “북한은 연말까지 우라늄 문제의 해명을 포함해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명기했음

● **미 NSC, 선 비핵화 강조(10/5)**

-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행동 대 행동’의 진전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강조했다

### 3. 대북한 관련

#### 가. 미·북 관계

● **힐, “北으로부터 플루토늄 50kg 확보해야”(10/3)**

- 힐 차관보는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5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이는 향후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약속에 따라 보유한 플루토늄 양을 신고할 경우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 그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을 신고받으면 2008년에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50kg 상당의 폭탄을 만드는 장치를 포기하고, 핵물질을 생산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 전문가팀, 영변 핵시설 방문 예정(10/9)**

- 미 국무부는 북한 영변 핵원자로 불능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미 전문가팀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음(10/5)

나. 일·북 관계

● **후쿠다 총리, 북·일 협상 노력(10/5)**

- 후쿠다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진전시 일본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핵문제가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협상해야 한다”고 말해 북·일간 협상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김정일, “후쿠다 정권 정책 주시하겠다”**

- 일본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일 관계정상화를 촉구한데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이 후쿠다 내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10/5)했음

다. EU·북 관계

● **EU집행위원, “北, 유럽 투자유치 위해 개혁 필요”(10/6)**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위해 방한 중인 키티 페어호 이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겸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AP통신과 회견에서 북한이 유럽의 유망한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혁을 실행해야만 한다고 밝혔음
- 북한에 대한 투자 조건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유럽 회사들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4. 주변국 관련**

●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개최 예정(10/15)**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5년 임기의 당총서기직에 연임되고 차기 지도자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